

# 평화와 함께 걸어온 히로시마의 스포츠

25학번 이0주, 김0울, 이0준, 이0인

## 들어가며

1945년 8월 6일, 원자폭탄 투하로 히로시마는 폐허가 되었다. 인구의 3분의 1인 약 14만 명이 목숨을 잃고, 도시의 90%가 파괴되었으며, “70년간 초목조차 자라지 않을 것”이라는 비극적인 예측까지 뒤따랐다. 그러나 히로시마 시민은 절망 속에서도 재건을 멈추지 않았다. 1949년 제정된 ‘히로시마 평화기념도시 건설법’을 통해 ‘세계 평화의 중심지’라는 비전을 내세우며, 일상과 희망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이어갔다.

피폭 이후, 폐허 속에서 학생들은 맨발로 축구를 이어갔고, 1949년 창단된 히로시마의 프로 야구단 히로시마 도요 카프(広島東洋カープ, 이하 카프)는 시민의 모금과 지지로 재정난을 극복하며 ‘시민의 구단’으로 자리매김했다. 본 답사에서는 이러한 맥락 속에서 스포츠가 도시 회복의 수단으로 선택된 이유와 그 과정에서의 역할, 그리고 그 의미가 현재까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I. 시민 연대의 중심점, 스포츠

### 1. 피폭 전, 히로시마의 일상이었던 스포츠

전쟁 이전에도 스포츠는 히로시마에서 잘 정착해 있었다. 특히 축구가 성행했고,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스포츠였다. 히로시마 축구 박물관(広島サッカーミュージアム)에서는 히로시마가 초기 일본 축구의 중심지였다는 점을 설명하고 있었다. 1919년 히로시마에서 독일 팀과의 교류가 이루어지며 일본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고, 많은 히로시마 출신 관계자들이 초기 일본 축구협회의 일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일반적으로 축구는 학교 단위의 활동이 활발했다. 특히 히로시마 제일 중학교(広島第一中学校) 학생과 졸업생으로 결성된 축구팀인 리조 축구단(鯉城蹴球團)은 1924년에 아식 축구 전국 우승 경기회(ア式蹴球全国優勝競技会) 등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이것을 통해서 스포츠가 히로시마의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진 1> 원폭 직후의 히로시마의 모습  
\*출처: 2025.7.30 자료관 사진, 필자 촬영



<사진 2> 1924년 천황배 JFA 전일본축구선수권 대회 우승컵을 받는 리조 축구단의 모습  
\*출처: 2025.7.29 축구 박물관 사진, 필자 촬영

## 2. 피폭 후에도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스포츠 전문 물품은 없었지만, 남겨진 물건만으로도 스포츠를 즐기기에 충분했다. 축구를 할 때 젊은이들은 축구화가 없으면 맨발로, 골대가 없으면 책상 두 개로 대신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스포츠를 즐겼다. 히로시마 축구 박물관에 있는 영상에서는 폐허 속에서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잔해 속에서도 언제든지 남녀노소 스포츠를 즐길 수 있었다. 그렇기에 누구나 사회 그룹으로 편입할 기회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시작으로 히로시마에서 축구라는 스포츠가 다시 정착하고 성장하게 되었다.

## 3. 스포츠의 에너지가 만든 시민 연대

히로시마 시민은 잔해가 된 도시를 보며 미래에 대한 불안함을 경험했다. 이때 스포츠는 도시 재건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수단 중의 하나였다. 1950년, 프로 야구단 히로시마 도요 카프가 히로시마의 부흥을 위해 창단되었으며, 카프는 시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창단식에는 약 2만 명의 팬들이 함께했으며, 그들은 카프를 응원하면서 히로시마 사람이라는 자부심을 느꼈다. 이러한 사실은 “히로시마 카프 탄생 이야기(広島カープ誕生物語)”라는 만화책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 책의 저자는 원폭을 직접 경험한 히로시마 시민인 나카자와 게이치(中沢啓治)이다. 그는 책을 통해 야구가 히로시마 시민에게 희망을 주었으며, 그들이 카프를 응원하며 서로 연대했던 점을 독자에게 인지시키고 있다.

카프의 홈구장인 마쓰다 줌줌 스타디움(MAZDA Zoom-Zoom スタジアム広島)에는 이 책을 배경으로 한 동상이 설치되어 있었다. 동상은 원폭으로 파괴된 도시에서 카프의 창단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고 있으며, 이는 야구가 시민을 하나로 연대하게 만드는 매개였음을 보여준다.



<사진 3> 히로시마 도요 카프 탄생 이야기 동상  
\*출처: 2025.7.29 필자 촬영

## 4. 시민 모금으로 만들어 낸 지역 연대

카프의 팬들은 본인이 카프의 팬이라는 강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카프는 시민과 함께 부흥한 구단이다. 카프 창단 초기에는 재정난을 겪었지만, 시민의 모금으로 다시 일어났다. 그런데 카프가 재정난을 겪었던 시기는 원폭을 맞은 지 단 6년 후인 1951년부터이다. 이 시기는 히로시마가 막 부흥하려던 시기이다. 즉,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시민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당장 먹고사는 것에 더욱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카프를 지원하기 위해 시민은 후원회를 결성하였고, 그 수는 약 8천 명이나 되었다. 후원회의 다수가 본인의 삶을 약간 희생해서라도 카프를 지원했다. 카프는 평화로운 일상을 다시 만들기 위한 의지를 투영한 존재 중 하나였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였기 때문에 기꺼이 카프를 후원했다. 이것은 히로시마 시민에게 카프는 단순 지역 스포츠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진 4> 시민에게 후원금을 전달 받는 카프 감독  
\*출처: 2025.7.29 필자 촬영

## 5. 연대를 통해 이루어진 부흥

도시의 연대를 만들어 낸 히로시마의 스포츠는 이후 히로시마의 부흥을 함께하였다. 히로시마의 부흥과 현재, 그리고 장래의 꿈을 주제로 한 전시회인 프라이드 오브 히로시마(Pride of Hiroshima)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전시회에서는 히로시마의 부흥 과정을 소개하는 부분에서 카프의 창단, 우승 장면을 담은 사진과 영상을 전시하고 있었다. 카프가 도시의 연대와 부흥을 함께한 과정을 통해, 야구가 단순한 스포츠가

아닌 히로시마의 부흥, 그리고 평화로 돌아가는 과정을 함께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II. 현재의 스포츠가 이어 나가는 '평화'

### 1. 스포츠가 상기시키는 평화

히로시마의 스포츠는 전쟁 전후 시민의 일상이었으며, 이는 스포츠가 시민을 하나로 모으고, 부흥을 이끌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였다. 스포츠는 현재까지도 히로시마 시민에게 그 의미와 전쟁과 평화의 기억을 상기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 1) 일상 속 스포츠에서 드러나는 평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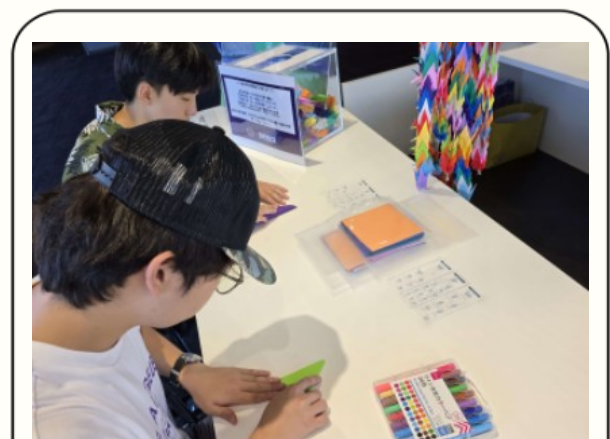
카프의 경기가 없는 날, 마쓰다 줌줌 스타디움은 사회인 야구 경기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특히 2025년 7월에는 원폭 80주년을 기념한 사회인 야구 토너먼트 대회가 개최되었다. 시민은 야구장에 모여 즐겁게 사회인 야구 경기를 관람하며, 가족, 친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야구장이 시민의 일상적인 공간으로 활용되는 모습을 통해 전후 히로시마 시민의 희망이자 일상이었던 야구의 의미와 '평화'를 다시금 상기시키는 스포츠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다.

#### 2) 평화의 메시지를 담은 구단의 콘텐츠

에디온 피스 윙 내부에 있는 히로시마 축구 박물관에서는 평화의 상징으로 통용되는 종이학을 접는 체험, 자신의 소중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축구와 평화라는 두 키워드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며, 평화로운 삶의 상징이었던 과거 스포츠의 의미를 방문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었다. 평화 발신을 위한 산 프레체 구단의 노력은 그들의 공식 굿즈 샵인 피스 윙 오피셜 스토어(ピースウィングオフィシャルストア)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 종이학의 모양을 한 열쇠고리, 평화기념공원과 경기장을 그린 티셔츠 등의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 히로시마의 평화를 발신하고 기억하게 하려는 구단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5> 원폭 80주년 기념 사회인 야구 대회 현수막  
\*출처: 2025.7.29 필자 촬영



<사진 6> 히로시마 축구 박물관, 종이학 접기 행사  
\*출처: 2025.7.28 필자 촬영

### 3) 특별한 경기를 통해 알리는 히로시마의 평화

2025년 7월 27일, 에디온 피스 윙 히로시마에서는 이벤트 경기인 지코 올스타 게임(Zico All Star Game 2025)이 개최되었다. 이 경기는 히로시마의 원폭 80주년을 기념하고, 전 세계에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 경기에 감독으로 참여한 지코의 인터뷰에서도 히로시마에서 볼 수 있는 평화를 전 세계로 발산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또 경기장 곳곳에서는 "For Hiroshima 80 Years"라는 문구를 발견할 수 있었다.

현재 카프는 매년 8월, 히로시마의 과거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평화를 알리기 위해 '피스 나이터(ピースナイター)'라는 행사를 개최한다. 이 행사에서는 구단과 시민이 함께 원폭 희생자를 추모하며, 동시에 평화로운 내일을 기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거 히로시마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평화로운 세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매개체였던 스포츠의 모습을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다. 히로시마 내에서 개최되는 여러 스포츠 특별 경기는 평화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다수의 사람에게 평화라는 키워드를 인식시키면서 다시금 평화의 기억을 상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사진 7> Zico All Star Game 2025 경기  
\*출처: 2025.7.27 필자 촬영



<사진 8> 피스나이터 히로덴 광고판  
\*출처: 2025.7.28 필자 촬영

## 2. 스포츠가 형성하는 평화 도시의 정체성

히로시마의 스포츠는 단순한 경기와 오락을 넘어, 도시의 평화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 문화가 되었다. 여러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스포츠는 전쟁의 기억을 되새기고, 평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행사나 평화를 주제로 한 전시,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은 참여한 사람과 보는 사람이 평화의 의미를 직접 느끼도록 한다. 또한 평화를 주제로 한 기념 행사나 굿즈 제작을 통해 히로시마의 평화 메시지는 국내외에 널리 전해지고 있다.

이처럼 히로시마의 스포츠는 과거의 비극을 잊지 않으면서 이를 미래의 평화로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스포츠는 히로시마가 평화 도시로 자리 잡는 데 이바지하며, 시민에게 평화 의식과 공동체로서의 자부심을 느낄 수 있게 해준다.



## 마치며

과거에 히로시마의 스포츠가 시민을 연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피폭 이전, 원래 스포츠가 시민의 일상이었고, 피폭 이후에 그들이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스포츠를 찾았기 때문이다. 축구는 아무 장비가 없어도 공만 있으면 경기를 하며 다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야구의 경우엔 시민이 카프를 위해 모금한 것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히로시마 주민에게 야구는 단순한 스포츠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로 여겼다. 스포츠는 이처럼 사람을 쉽게 모아 하나로 만들어 그들에게 희망을 주며 그 상황의 아픔을 잠깐이나마 잊게 만들 수 있었다.

현재, 히로시마에서는 스포츠를 통해 '평화'를 다양한 방법으로 상기시키고 있었다. 올해 7월 열린 사회인 야구 대회 같은 시민의 일상, 산프레체의 축구 박물관, 행사와 굿즈샵 같은 구단의 콘텐츠와 매년 8월 열리는 카프의 '피스 나이터'나 에디온 피스 워 히로시마에서 열린 지코 올스타 게임 같은 특별 경기를 통해 경기장 안팎으로 평화를 드러내고 있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평화의 소중함을 잘 알고 있는 히로시마가 그것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며 평화 도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 재건 당시 스포츠의 행적과 현재 스포츠가 '평화'를 이어 나가는 것을 통해서 히로시마에서의 스포츠가 단순히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오락 산업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스포츠는 히로시마 시민에게 있어 일상이자, 일상으로의 회복을 돕고,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게 하는 매개체인 것을 이번 답사를 통해 알게 되었다.